

# “마음 아픈것 모르면 중생 허물 못 벗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인이 되면  
월도 지음  
문학스캐치 펴냄  
1만4천원

“고통은 나쁜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며 감사한 것임을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어서, 하는 일도 잘 안 풀려서, 똥통해서, 자녀가 공부 못해서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고민하고 고통 받는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현실도 달라질 수 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이 ‘힐링 메시지’를 담은 신간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인이 되면>을 보면 마음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스님은 “육신이 아픈 것도 병이지만 마음이 아픈 게 더 큰 병”이라며 “우리는 모두 고통과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라고 책에서 말한다. 무명의 세상을 헤매면서도 오히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마음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마세요. 마음이 아픈 것도 모르면 중생의 허물을 벗을 수 없어요.”

스님은 가끔 ‘법문을 들으면 그때는 마음이 편안할데 돌아서 나오면 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들으나 마나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순간순간 하다 보면 영원으로 쌓여가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인생을 사는 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청소년들에게 스님은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한번 가보라며 권한다.

응급실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곳이다.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한다. 또한 의식을 잃은 환자 앞에서 애타계 발만 동동 구르는 가족들은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애야 해요.”

## 중생은 모두 고통과 더불어 함께 존재 고통에 감사하면 자유로울 수 있어

바란다. 이것이 중환자실과 응급실 풍경이다. 그것을 청소년들이 지켜본다면 아마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 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은 “불행을 지혜롭게 대처 못하면 또 다른 불행을 만들게 된다”며 “고통에 감사하고 고통에서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이 책은 스님이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한 삶을 살도록 조언하기 위해 엮은 글이다.

백 년도 못 되는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들로 별별 일을 다 겪



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기도,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스님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진리의 가르침을 빌어 세상의 이치와 인생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한 자락을 보여준다.

그가 전하는 믿음과 가르침이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만들어주고, 행복은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말한다.

“제가 상담 청하는 분들 대부분은 무언가 답답한 게 있는 분들이지요.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분은 별로 없어요. 백년도 못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한평생 살다보면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보니 사람 때

문에 힘들 때도 있고, 돈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져야 할 텐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보니 절에서 법문 할 때도 자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군요. 눈만 뜨면 마주하는 남편과 아내, 이보다 더 지중한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부모님, 이보다 감사한 인연이 또 어디 있겠어요? 가족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가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생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차피 함께하는 세상,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것이지요.”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점(點)이 모여 선(線)이 되고 선이 모여 면(面)이 되지 않겠어면 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순간순간 감사한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인생은 철저하게 셸프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올 때도 그렇게 왔듯이, 살 때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한 갈 때도 그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지요.”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월도 스님은?

소백산 구인사로 출가한 스님은 대종 대종사를 수년간 시봉했다. 이후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 등 여러 천태종 사찰의 주요 소임과 주지, 종단의 총무부, 교무부, 사회부 국장, 복지재단 이사,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는 분당 대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 죽음에 대한 166가지 사례 소개

왕생집 죽음너머

윤서주경 역음 | 연관 옮김 | 호미 펴냄 | 2만원



가치있게 살자는 ‘웰빙’과 함께 ‘웰다임’도 중요한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죽음 또한 삶의 한 부분인 만큼 삶의 문제와 긴밀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두렵기 짝이 없는 죽음의 문제는 인류에게 가장 근본적이면서 오래된 화두다.

불교는 생로병사를 네 가지 큰 고통으로 꼽는다. 이렇듯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부터 고통이라 하는 불교는 그래서 삶이라는 고통을 건너는 죽음을 열반의 기쁨으로 승화한다.

곧 스스로 닦아 깨달음에 이르는 자력 신앙을 통해 나고 죽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고 정도에 왕생하는 즐거움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노정하는 것이다. 참선 수행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염불수행은 부처님 명호를 일심분란하게 염불하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죽음에 이르러 부처님 나라에 왕생하는 열반을 얻는다는 것이다.

윤서주경 스님이 지은 <왕생집 죽음너머>는 중생 스님 이전 시대 사

람들이 실제로 정도에 왕생했다고 전하는 이야기를 모아서 엮은 ‘왕생 사례집’이다. 명나라 4대 스님으로 이름을 떨쳤던 주광 스님. 그는 염불수행이야말로 “말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비한 영약”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왕생 사례를 보이는 대로 적으며 갈무리하기를 11년에 걸쳐 지속한 끝에 1,100여 가지 왕생 사례를 모았다. 그 가운데서 다시 166가지 사례를 추려서 책을 엮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내용은 왕생한 주인공들 신분을 따라 여덟 편으로 나뉘어 있다. 승려, 임금과 사대부, 부녀자 뿐만 아니라 약인들까지 정도에 왕생한 이야기를 엮으면서 흥미를 더 한다. 또한, 각 편마다 전체의 뜻을 결론 지어 총평을 더해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로 눈 앞에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는 그대로 믿을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편 하나의 이야기가 감동이 커서 깨달음을 얻어 생사의 업을 끊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불심을 가다듬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 같다. 더불어 166편에 걸쳐 되풀이되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죽음에 이르러 부처님 나라에 왕생하는 열반을 얻는다는 것이다.

윤서주경 스님이 지은 <왕생집 죽음너머>는 중생 스님 이전 시대 사

김주일 기자

# 불교서 유래한 일상용어 설명

생활속 불교용어

글 방경일 | 삽화 김광일 | 운주사 펴냄 | 1만원



“면목이란 무엇일까?” “면목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7세기 중반 무렵부터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면목은 일반인들 사이에 사용되면서 ‘본래의 모습’이라는 의미보다는 ‘얼굴(체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장로, 천사, 천당 등 지금 기독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원래 불교 용어라는 것은 웬만해 불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불교의 대명사인 ‘대자대비’라는 말이 현재도 기독교에서 가끔 사용되고 있다면 대부분 깜짝 놀랄 것이다. 계종에는 이렇게 기독교에서 불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불교가

그 만큼 뛰어남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저가 보기에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비록 불교서 시작된 용어라도 기독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어느새 그 용어는 기독교 용어가 돼 버리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정신문화도 함께 넘어가 버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불자들이 불교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를 지키고 가꾸어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생활속 불교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한 교양서이다. 불교용어는 한자어가 대부분이다. 불교가 동북아시아로 들어 올 때 한문으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시작으로 본다면 다소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불교용어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 김주일 기자

# <장자> 심도있게 해설해 놓아

장자, 그 선의 물결

감산역청 원저 | 심재현 역해  
정우서적 펴냄 | 2만5천원



전작 <노자, 그 선의 향기>의 후속작인 이 책에서는 장자에 대한 감산의 주와 해설에 역자의 번역과 해설을 곁들여 장자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노자 전공자인 역해자는 원문을 탐재하고 장자만 읽고자 하는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자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역사 고유의 해설을 곁들이는 한편, 역해의 초점은 노장사상의 물이해에 대해 자상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곤·봉 이야기에는 창조주가 없다. 창조주를 끌어들이지 않고 이 우주와 만물의 발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우주안에 존재하는 개체들을 노장은 ‘물(物)’이라

고 하는데 대개 ‘사물’이라고 번역한다. 내가 보기에 좋은 번역이 아님에도 나 또한 별다른 번역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냥 ‘사물’이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우리가 쓰는 물질로 된 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사물’이라고 한다.

노자에게 있어서 사물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성된 것이다. 생성된 사물은 어떤 신적인 최고 존재자인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성되었을 뿐이다. 생성되었다는 것은 사물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노장은 ‘자연(自然)’이라는 표현을 쓴다. ‘自然’은 번역하면 “스스로 그러하다”이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nature’라는 뜻으로 쓰는 ‘자연’이 절대 아니다. 자연도 스스로 그러하게 생성된 것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다. 모든 사물은 절대 타자인 창조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물 스스로 생성된 것이다. 김주일 기자

# 더위도 잊게하는 한시 읽기

한시마중

이종목 지음 | 태학사 펴냄 | 1만5천원



십 몇 년 만에 찾아왔다는 무더위, 유난하게 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어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이 폭력과는 같은 계절을 어찌 견뎠을까 궁금해진다 한시(漢詩)를 읽어보자.

차가운 샘물에 국수 말아 먹고, 더위를 잊고자 밤낮으로 주연을 여는 선비들의 풍경이 떠오르는 한시에는 계절을, 세월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삶이 배어있다. “세월은 어찌 이리 급하게 달리는가...잠자리는 저녁 햇살에 어지러운

데/ 귀뚜라미는 시원한 소리를 보내어...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가장 좋으니/ 어찌하고 명성을 차지하려 들겠는가”

조선 전기 학자 서거정(1420~1488)은 한시 “가을생각(秋愴)”에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낙향하고 싶은 소망을 비친다. 입추를 넘겨 날아온 잠자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에도 날아든 것이다.

이종목 서울대 국어국문과 교수가 철 맞춰 어렵지 않게 읽기 좋은 한시들을 ‘한시마중’에 모았다. 봄꽃이 피고 단풍이 들 때의 정취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계절별로 묶였다. 이 교수는 서문에서 “예부터 한시는 밤 먹고 차 마시는 것처럼 일상의 단상 중 하나였고 그래서 한시는 더욱 아름답다”며 “이제 범상한 일상을 한시로 읽고자 한다”고 썼다. 김주일 기자

##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춤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계, 대계, 향화계, 오공양, 음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복,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통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의처 : 강주 흥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무료 공개체험  
신지식 공유를 위하여  
수시 공개합니다  
전화요망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대

원목 법상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 퓨전치유

양자치유+기치유+레이키치유+두개  
천골+이미지힐링 등의 통합응용입니다.

당신도 지금 훌륭한 치유의  
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치유기법과 만나십시오.

퓨전치유.com 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강 : 2012년 9월 16일(일요일)  
오후 2시

장소 : 세계자연치유학회부산지회  
문의 : 010-6521-7090  
051)527-7090